

#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housewives' attitudes  
and behaviors of diligence, frugality, and economy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부 교수 두 경 자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홍 계 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myung Univ.

*Associate prof:* Kyung Ja, Do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myung Univ.

*Lecturer:* Kye Ok, H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housewives' attitudes and behaviors for diligence, frugality and econom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273 housewives living in Seoul. Statistical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means, standard deviations,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ree variables of attitudes and behaviors are still highly maintained. All of attitude variables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ose of behaviors. Economy seems to b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mong those of three variables.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가족의 문화는 물질적 충족 없는 단순한 정신적 요소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의식주에 관한 가정내 문화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족문화는 가족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성을 보호하고 유지해 주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가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물질적 자산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외의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은 물자에 관련된 가정경제의 안정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가족의 인간성을 지키는 장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끝없이 풍요로운 물질만이 가정경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물질만이 필요하다. 즉 정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가 균형을 이룬 존재로서의 인간이 최고의 인간성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다고 볼 때 가족은 물질이 최적의 양이 되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즉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절제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세키쿠치(김외숙 외역, 1996)가 Economy를 경제의 덕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경제의 덕에는 절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두경자, 1998).

현대의 과도한 물질추구와 물질에 대한 무절제는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가정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조상대대로 부존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자원을 절약하며 근면·검소하게 살도록 물질적 부족을 초월할 수 있는 정신적 배양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성장 발전을 통하여 이러한 토양이 붕괴되면서 한국인의 경제활동 의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전원재(1990)는 한국인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소비문화에의 부적응을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즉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여 물질적 부가 성공의 지표로 대두되었고 근검절약 행동보다는 자신의 실질적 수준 이상의 소비와 낭비를 하게 되어 지나친 과소비의 성향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경제활동은 오늘날 IMF와 같은 국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하였다.

이제 거품경제와 과소비비를 지양하고 각 가정의 건전한 가계경제문화를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를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는 금전을 포함한 재물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의식과 생활태도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재물관리의 식과 태도에는 물질에 감사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물질을 절제하는 근검절약정신, 즉 물질에 관한 윤리성이 부재하였다. 이제 경제를 다시 재건하려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인 물질에 관한 근검절약정신을 우리 의식의 기저에 확실하고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 미덕인 근검절약정신에 관심을 갖고 생활속의 근검절약 의식과 실천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한 가정의 가계운영은 그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의 쇠퇴, 변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송영주, 1981) 한 가정 경제를 주도하며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 및 아동의 생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의 경제활동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의 경향을 살펴보고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제로 나타나는 주부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거품경제를 지양한 보다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부의 건전한 경제활동 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은 어

떠한 경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근검절약에 관한 문화적 배경

서구물질문화의 도입으로 근검절약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풍토에선 올바른 소비생활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건전한 소비생활의 인식을 위하여 근검절약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살펴보고 근검절약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조 선현들은 인간의 물결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꿰뚫어보고 인간이 자족할 수 있는 물질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갈 때만이 인간성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일찍이 터득하였다. 즉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물질보다 존재의 본질가치를 더 우위의 관념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행복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에서 얻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신장이 아니라 물질적 신장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물욕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일정 수준의 물질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내린 인간의 도리를 따르는 길로 생각하였다. 우암계녀서의 19장 「중요로운 경계」(중요로운; 아주 긴요하다는 의미의 우리말)에서 “부귀재천(富貴在天)으로 사람의 귀천이나 빈부는 다 정하여진 분수에 달렸으니 남이 귀하게 되어 벼슬이 높거나 집이 부유하더라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은 온갖 처지가 다 뜻이 있고 좋은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추위도 나만큼 못 입은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배가 고파도 나만큼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히 부족한 데서 오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고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의 「농사와 누에치는 일에 힘쓰기」에서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천명(天命)이어서 아무리 밤낮으로 바라도 쉽게 얻어질 이치가 거의 없지만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는 사람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인생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므로 물욕에 대한 큰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이다.

이로써 조선조 선현들은 인간존재의 본질을 간직할 정도의 한계적인 물질소유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상태의 물질소유는 생활의 근검절약저축의 실천으로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조선조 선현들의 근면, 검소, 절약에 대한 지침내용을 분석해본다.

먼저 근면은 위 4가지 정신 중 가장 으뜸으로 보았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물질은 근면으로 충분히 얻어질 수 있으며 근면으로 물질이 얻어진 후에야 검소 절약 저축생활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우암선생계녀서(尤庵先生戒女書)의 12장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에서 “한 나라의 제왕인 천자나 임금의 아내인 왕후도 놀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을 안하고 어찌 부모를 섬기고 자손을 양육하겠는가…… 부디 부지런히 사는 것을 위주로 하여라”고 하였고 사소절(士小節) 제8권 「사물」(이런일 저런일)에서는 “선비의 아내는 집안의 생계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살아갈 도리를 마련하여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생계의 도움이 되는 부녀자의 수공의 한가지다”고 부업을 장려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의 「집안건사하기」에서는 “가난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 것은 군자에게는 가능한 일에서 보통 사람은 일정한 자산이 없으면 예의에 대한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므로 입과 먹기에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사람이 열 살부터 일흔 살까지는 자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근검하고 선량하면서 부자가 못되는 자가 있겠는가”하였다. 선현들은 근면으로 벌어들인 물질의 소비에 대한 지침으로 검소·절약·저축을 들고 있다.

검소한 후에야 절약과 저축생활실천이 가능해지므로 검소는 소비생활지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검소한 생활태도에 대하여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혼례, 상례, 제사 등의 절차도

되도록 검소하게 집안 형편에 맞추어서 할 뿐 지나치게 분수이상의 사치스런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패망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소혜황후의 내훈(內訓) 제7장「청렴과 검소」에서는 “검소한 생활에서 사치스런 생활로 돌아가기는 쉬워도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하루아침에 오늘과 달라진다면 집안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익힌 것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였고 성호사설(星湖僿說)의 「나라의 흥망이 사치와 검소에 달렸다」에서 “나라의 흥망은 모두 사치와 검박에 달려 있다. 공자가 사치스러우면 겸손하지 못하고 검박하면 고루하다고 하였는데 겸손하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사치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고 교만하면 남을 업신여기고 빼앗으며 물자사용에 무절제하다”고 하였다. 조선조 선현들은 검소를 인간이 따라야 할 순리로 보았고 사치를 인간이 배격해야 할 역리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이 역리를 취할 때 심성은 교만해지고 물욕이 강해져서 소비에 절제가 없어지며 결국에는 한 집안이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검소를 작게는 집안을, 크게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생활의 기본법칙으로 본 것이다.

물자를 소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절약을 권장하고 빛을 경계시켰다. 우암선생계녀서의 제11장「재물을 준절히 하는 도리」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법도는 재물을 절약하여 쓰는 것밖에 좋은 도리가 없다. 부질없는 허비를 하지 말고 쓸데는 아끼지 말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에는 추호도 허비하지 말아라”고 하여 물자를 절약하되 물자사용을 무조건 이끼기만 해서 안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할 곳에는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였다. 절약과 인색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과는 다르다. 가령 10할을 써야 할 곳에 7,8할을 쓰면 그것은 절약 검소하는 것이고 1,2할을 쓴다면 그것은 인색한 것이다”고 하였다.

절약생활을 실천하는데는 남의 빛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조선조 선현들

은 절약은 권장하였으되 빛을 지는 생활은 철저히 경계시켰다. 빛에 대하여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집안이 망하는 원인을 보면 나랏돈과 사재를 빌려 쓰는데서 비롯된다. 재물을 모으려면 먼저 재물이 없어지는 미간(새어나가는 틈)부터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공이 없게 된다”고 하였고 사소절 부의편 8장「사물」에서는 “부인이 빛을 내고 꾸어 쓰기를 잘하는 것은 절약하지 않는데서 생기며 절약하지 않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여 빛을 경계시켰다(두경자, 1997)

두경자(1998)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선현들의 근검절약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다음과 정리하고 있다.

1. 하늘은 인간의 지나친 사치와 허영 그리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생활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는 욕심이 없고 탐박해야 하며 부귀라는 바탕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3. 의식주를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의복은 추위를 가리는 정도, 음식은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 거처는 병들지 않을 정도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의식과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물욕을 다스리는 능력이 형성된다.
4. 재물은 근면을 통하여 얻도록 하며 재물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서 모아야 한다.
5. 호의호식은 인간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재물을 낭비하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6. 관상재제시 부자를 기준으로 한 과도한 지출은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길이 된다.
7. 넉넉할 때도 재물을 아끼고 절약하여 부족하게 되는 때를 대비하고 지위가 높을 때도 낮아질 때를 대비하여 항상 근검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8. 견딜만 하거든 남에게 빛을 얻지 말며 생활비를 앞당겨 써서는 안된다.
9. 저축은 항상 쓰는 비용의 일부를 남겨서 한 푼, 한 줌의 쌀부터 시작하고 소득 있을 시는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로 비용을 충당한다.
10. 수입을 해아려서 그 범위 안에서 비용을 쓸 것이며 예산을 짜고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11. 손님접대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거나 너무 자주하여 재물을 축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2.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

인간의 의식은 자신의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일 또는 인간상태, 제도, 사상, 가치현상과 같은 심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방향이 결정되는 감정적인 색조인 태도라는 개념이다(홍승직, 1971).

소비의식과 경제활동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가치관이나 규범적 의식과 관계된 것이다(이민표, 1885).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검절약을 권장해 오긴 하였으나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경제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관혼상제, 체면에 따르는 허례의식 등이 비합리적인 경제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걸치레 문화는 고도의 경제성장 및 서구물질문화와 접촉되면서 적절한 소비와 건전한 경제활동 보다는 낭비, 사치, 과시와 같은 부정적 속성을 초래하였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의식이 내면적으로 잠재해 있는 의식과는 달리 행동은 동기가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즉 행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갈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박기동, 1976).

인간의 욕구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경제적 상태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사회 경제적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의 욕구수준도 상승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만을 위한 소비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소비로 소비행위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과 가족구조 자체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에 앞서간다(이동원, 1985). 이는 전통 가치관과 서구주의적 가치관의 접촉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단절과 서양의 물질주의(Belk, 1984) 문화의 수용에 기인한다. 따라서 실제 근검절약 행동이 의식보다 더 서구화되어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간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식은 행동을 예측가능케 하고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김제은, 1987)는 보고에 따르면 주부들의 근검절약

에 대한 의식은 그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근검절약에 대한 국내 연구가 드물어 선행 연구 고찰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사한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춘(1975)은 가계관리에 관한 의식이 가계관리 행동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관리의식은 가계경제 발전의 쇠퇴, 변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다. 서울시 주부의 가계관리 의식에 대한 허은주(1992)의 연구에서는 가계관리 의식과 행동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높은 가계관리 의식은 높은 가계관리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중 특히 근검절약 의식은 가계관리수행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축, 자녀용돈 관리, 구매 등에서 보다 건전한 가정경제 생활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희자(1987)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가계관리 행동에 근검절약 행동이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이었으며 이들은 직업지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울 전 지역이 고루 포함되도록 추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주부들은 모두 300명이었으며 주부들의 연령은 38-57세였으며 평균 46.5세였다.

이 연구에서 제1집단은 과학자,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판·검사, 의사, 약사, 교수, 교사 등 전문직, 정부 고위관리직을 포함한 경영관리직, 대기업주를 포함한 자본가 등이 포함되었고, 제2집단은 사무직, 자영업, 및 자영기술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3집단은 생산기능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273			
변인	내용	N	%
남편의 직업	비취업	1	.4
	제1집단 전문직	142	53.9
	제2집단 일반사무직	107	40.7
	제3집단 단순노무직	13	5.0
주부의 직업	비취업	212	78.8
	제1집단 전문직	18	6.7
	제2집단 일반사무직	26	9.6
	제3집단 단순노무직	13	4.7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2	4.4
	고졸-전문대졸	113	41.9
	대졸이상	145	53.7
주부의 교육	중졸이하	38	14.2
	고졸-전문대졸	159	59.3
	대졸이상	71	26.5
주부의 종교	개신교	71	26.2
	천주교	68	25.1
	불교	68	25.1
	기타	64	23.1
가구의 소득	240만원이하	28	10.3
	240-350만원이하	132	48.7
	350-450만원이하	69	25.5
	450만원이상	42	15.5

## 2. 측정도구

### 1)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에 대한 측정도구

주부들이 근면, 검소, 절약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기존의 문헌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하였다.

모두 25개 문항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주성분분석 방법 및 직교회전방법 중 Varimax를 실시하였다. 다음 주요인분석방법과 사각회전방법 중 Promax를 통하여 3개를 지정한 후 다시 각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중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것을 뺀 나머지 14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을 거친 결과, 근면 의식이 4

문항, 검소 의식이 5문항, 절약 의식이 5문항 추출되었으며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식이며 1점은 5점, 5점은 1점으로 역코딩되었다. 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72로 나타났다.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 2) 주부의 근검절약 행동에 대한 측정도구

주부들의 근면, 검소, 절약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의식 문항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기존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26개 문항을 상관계수를 기초로 주성분분석방법 및 직교회전방법 중 Varimax를 실시하였다. 다음 주요인분석방법과 사각회전방법 중 Promax를 통하여 3개를 지정한 후 다시 각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중 요인부하량이 .25이하인 것을 뺀 나머지 14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의식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근면 행동 4문항, 검소 행동 4문항, 그리고 절약 행동 5문항이 추출되었다. 역시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식이며 1점은 5점, 5점은 1점으로 역코딩되었다.

신뢰도는 근검절약 의식과 마찬가지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6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과정은 기초자료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S대학의 3학년 학생 30명을 질문지 조사원으로 위촉하고 질문지 배부, 면접요령, 수거관리요령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 이들에게 10부씩의 질문지를 주고 서울시의 전 지역이 고루 포함되도록 지역을 분배한 유의 추출 방식이었다.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기록이 미비한 일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실제의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273명이었다.

〈표 2〉 근검절약 의식의 요인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h <sup>2</sup>
근면 의식	25	근면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69		.48
	23	일하지 않고 얻는 큰 불로소득보다	.68		.88
		맘홀리고 일해서 어든 작은 보수가 더 값지다			
	12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천명이나 작은 부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53		.30
	1	될수록 일을 적게 하면서 편히 살고 싶다	.36		.15
검소	17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일수록 인품이 더 훌륭해 보인다		.68	.51
	18	집은 크고 넓을수록 좋다		.66	.18
	16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다		.58	.35
	20	호의호식이란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삶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53	.30
	9	반찬가지수를 줄이면 건강에도 해롭고 식사를 즐겁게 하기가 어렵다		.38	.18
절약	11	“한푼 두푼 절약하여 모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된다.”는 속담과 같이 된다		.63	.44
	14	관혼상제의 비용은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남들 하는 것 만큼은 써야 한다		.56	.32
	5	한 번 산 물건은 정성스럽게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다		.49	.31
	2	에너지 절약의 한 가지 방법은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48	.31
	3	“물쓰듯 쓴다”는 속담과 같이 물은 넉넉하고 풍족하게 써야 위생적인 생활이 된다		.30	.11
고유값		3.19	1.19	1.37	
설명변량		25.34	12.74	9.19	
전체변량			47.27		

자료분석은 SAS PC+를 사용하여 빈도 분포, 백분율, 요인분석, 그리고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의 일반적 경향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은 〈표 4〉

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표 4〉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면·검소·절약 등 세 가지 의식과 행동변인들의 전체적인 경향은 근면 의식과 행동, 절약 의식과 행동이 모두 3.5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검소 의식과 행동은 3.5이하 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근면·검소·절약 등의 세 가지 의식에 관한 평균점수가 절약, 근면, 검소 의식순으로, 세 가지 행동에 관한 평균점수는 근면, 절약, 검소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의식과 행동의 경향은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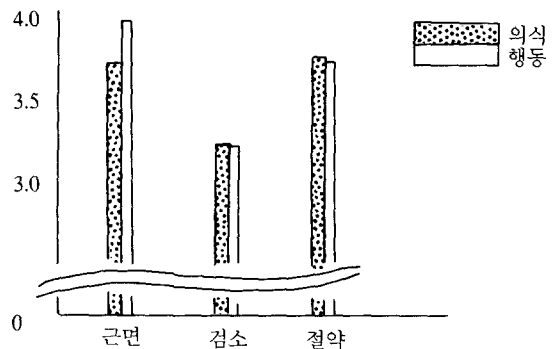
〈표 3〉 근검절약 행동의 요인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h <sup>2</sup>
근면 행동	15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한다	.83			.72
	14 시간약속을 정확히 지킨다	.60			.37
	1 하루 중 일을 하는 시간보다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	.51			.32
	2 게으르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49			.30
검소 행동	17 남이 입던 옷이나 소지품을 물려 받아 사용한다		.54		.30
	18 물건을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메이커를 보고 산다		.50		.26
	6 구두 굽을 바꾸거나 바닥창을 갈아 끼우는 등 구두를 수선하여 신는다		.49		.27
	9 바겐세일이나 중고품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30		.15
절약 행동	13 카드사용대금이나 예상외의 지출 등으로 생활비나 용돈이 부족할 때가 있다			.56	.40
	12 옷은 싫증이 나서 못 입는다			.32	.39
	21 물건을 사다가 음식을 만들 경우 손이 크다는 평을 듣는다			.28	.38
	24 휴지, 비누, 세제, 치약 등은 끝부분까지 완전히 사용한다			.26	.37
	15 될수록 음식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5	.28
고유값	3.14	2.09	1.52		
설명변량	20.95	13.89	10.14		
전체변량		44.98			

〈표 4〉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 경향

	근면		검소		절약	
	M	SD	M	SD	M	SD
의식	3.63	0.59	3.25	0.72	3.74	0.60
행동	3.94	0.65	3.24	0.68	3.71	0.54

으로 볼 때 대체로 의식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소변인과 절약변인은 의식과 행동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단지 근면변인의 의식과 행동에서 점수 차이를 나타낸다. 즉 근면 행동이 근면 의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근면에 관한 행동이 의식보다 선행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을 나타낸 막대그래프



## 2.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의 상관관계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의식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절약 의식과 검소 의식, 절약 의식과 근면 의식, 그리고 근면 의식과 검소 의식의 관계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의 상관관계

변인	근면 의식	검소 의식	절약 의식	근면 행동	검소 행동	절약 행동
근면의식	1.00					
검소의식	.27***	1.00				
절약의식	.46***	.51***	1.00			
근면행동	.33***	.12*	.27***	1.00		
검소행동	.15*	.42***	.40***	.25***	1.00	
절약행동	.27***	.40***	.43***	.37***	.39***	1.00

\* P < .05, \*\* P < .01, \*\*\* P < .001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들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근면 의식은 근면, 절약, 검소 행동의 관계순으로, 검소 의식은 검소, 절약, 근면 행동의 관계순으로, 그리고 절약 의식은 절약, 검소, 근면 행동의 관계순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근면 의식은 근면 행동과, 검소 의식은 검소 행동과, 그리고 절약 의식은 절약 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절약 의식과 절약 행동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검절약 행동들간의 상관은 근검절약 의식들간의 상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절약 행동이 검소, 근면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의식들간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주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밝혀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 경향을 살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5점 척도에 평균 3.0 이상), 이는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의식에 있어서 여러 요인 들 중 근검절약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허은주(1992)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 요인들 중 근면 의식과 행동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근면 행동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근면, 검소, 절약, 저축의 4가지 정신 중 근면을 으뜸으로 보았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물질을 근면으로 얻을 수 있으며 검소, 절약, 저축은 물질이 얻어진 후에 가능하다고 간파한 연구(두경자, 1997)와도 일치된다.

그러나 검소 의식(3.24)과 행동(3.25)이 다른 의식과 행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서구 물질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근면과 절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든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하여 번 돈을 절약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검소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Veblen(1989)에 의하면 과소비란 자신의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생존에 필요한 실질적 수준 이상의 소비를 함으로써 남의 시선을 끄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과소소비의 본질은 낭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즉 사용보다는 사치, 낭비를 통하여 소비자가 재화의 효용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행동으로 일컬어진다(백경미와 이기춘, 1993). 특히 과거와는 달리 명

확한 신분이나 계층, 계급 구별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는 물품소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소비형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시소비 현상은 타인을 의식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하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다른 소비자의 소비행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허례의식과 무분별한 소비풍조를 조장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지나친 허례의식과 같은 비합리적인 걸치례 문화가 서구물질문화와 접촉되면서 부정적인 경제문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시소비는 검소차원에서 의식과 행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과시소비풍조는 성인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이나 아동에게도 쉽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백경미와 제미경, 1991).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들간의 경향에서 검소, 절약 의식들과 행동들 간에는 유사한 평균점수를 보였지만 근면 의식과 행동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근면 행동(M=3.94)이 근면 의식(M=3.63)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동과 의식간에는 지체현상이 있어(이동원, 1985) 행동이 의식에 앞서 변한다는 추측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고도 성장과 서구화에 맞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의식보다는 행동이 앞설 것으로 여겨져 근면 행동이 근면 의식보다 낮게 나타나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어긋남으로써 주부들의 근면한 행동관은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절약 의식과 행동이 다른 변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주부들의 절약적 태도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아껴써야 한다는가, 절약하여 저축을 한다는가하는 절약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의식교육이 잘 이루어져 왔음을 반영한다. 백완희(1987)도 소비자 기능 연구에서 절약 기능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주는 변인임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절약변인은 주부의 소비기능에 다른 변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에서 근면변인과 절약변인이 높게 나타나 아직 상당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앞서 살펴 본 허은주(1992)와 정희자(1987)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가계관리 행동에서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이 가장 상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주부들의 바람직한 경제활동에서 아직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단지 검소차원에서는 의식과 행동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나 이 측면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보다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정적 소비생활을 초래한다(김문희, 1996)고 볼 때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 미덕인 근검절약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Prevery(1945)는 가계관리 행동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학습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주부의 바람직한 가계관리 및 경제행동을 위해서는 의식이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계몽과 의식함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할만한 선행 연구가 드물어 연구의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만을 다루었는데 주부들의 경제활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다루어 보기 위해서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생태적인 관점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종단적 연구라든가 세대들간의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경제활동을 예측하려는 사회경제학의 관점(Katona, 1974)을 도입하여 주부들

의 심리적 상태에 따른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문희(1996).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2)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대출판부.
- 3) 두경자(1997).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조선조 선현들의 철학적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89-100.
- 4) 두경자(1998). 우리나라 선현들의 근검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0호, 339-358.
- 5) 박기동(1976). 행동과학, 서울: 박영사.
- 6) 백경미·이기춘(1993).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 영향이 과소비에 미치는 효과,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1(2), 161-176.
- 7) 백경미·제미경(1991). 과소비 문제에 관한 고찰, 인제대학교 인제논총.
- 8) 백완희(1987). 인천시 여고생의 소비자 기능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세키쿠치후사 외(1996). 가정철학, 김외숙과 장용선 공역. 교문사.
- 10)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1990). 과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비자.
- 11) 송영주(1981). 서울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기춘(1975). 가계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1), 79-89.
- 13) 이동원(1985).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 14) 이민표(1985). 저축·소비에 대한 규범적 의식과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훈석(1990). 한국의 여혼. 대원사.
- 16) 전원재(1990). 한국적 소비자 연구의 방향, 소비자학연구, 39-49.
- 17) 정희자(1987). 용돈에 대한 부모의 관리가 자녀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허은주(1992). 서울시 주부의 가계관리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대 아세아 문화연구소.
- 20) Belk,R.(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265-280.
- 21) Katona,G.(1974). Psychological and consumer Economic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1(1), 1-8.
- 22) Veblen(1989). Theory of leisure class, N.Y.: The Macmillan Co., in 김태은 (1997). 주부의 과소소비 성향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 23) Prevery,E.(1945). A qualittitative study of family practices in training children in the use of mone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6.